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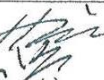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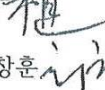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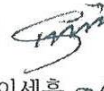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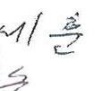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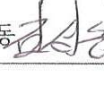


제6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14.01.27(월)	11:30~12:30 15:00~17:50
		장 소	공대 206호 회의실	
제 목	2014학년도 등록금 책정 심의			
참석위원	기획처장 변영태  학생처장 윤순중  사무처장 전성표  교학관리처장 장인식  외부전문가위원 심재익  (서울)총학생회장 최창훈  (서울)경영대 학생회장 이세훈  (세종)총학생회장 기성하  (세종)상경대 학생회장 김선동 			
불참위원	심재익(외부전문가위원)			
회의내용	1.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상호 인사. 2. 회의 내용 : (기획처장)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한다) 회의록에 대하여 누락된 부분과 수정 사항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학교측위원과 학생측위원이 합의하여 제5차 등심위 회의록을 수정하고 회의록에 서명함. (기획처장) 제5차 등심위에서 학생위원들이 학교 측에 요청한 2013학년도 추경예산자료는 1.25(토)에 학생지원팀 전영우선생을 통하여 전달하고 학생처장실에서 서울 총학생회장, 서울 총부학생회장, 재무팀 정종혁선생, 김용훈선생, 학생지원팀 전영우선생이 참석하여 재무팀 정종혁선생이 2013학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했다고 하고 오늘 회의는 2013학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과 신입생 등록금 고고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자 함. (서울)총학생회장 : 2013학년도 추경예산을 검토한 결과 교비회계가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혼재되어 있어 등록금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건축물관리비가 예산 대비 집행예정 금액이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건축물관리비예산 중에서 (구)부속학교 전기, 시설, 설비공사와 미교원, 세종캠퍼스 새로암학사 등의 GHP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요청함. (서울)경영대 학생회장 : 그리고 인문관 C동 실기실 공사는 예산의 1/10, 고시반 시설공사는 1/7정도만 예산에서 집행하였는데 이것은 분명 예산 뺏기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미집행 부분에 대한 사유도 설명을 요청함. (사무처장) (구)부속학교 공간배정이 확정되지 않아 미집행한 부분도 있고 동계방학 중에 실시예정인 공사도 있음. 구체적인 사유는 오후 회의에 건설관리팀장이 참석하여 설명토록 하겠음. (세종)총학생회장 : 교외장학금 39억 미집행사유는 무엇인가고 문의함. (사무처장) 2013년 12월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추가로 받은 국가장학금 및 미집행금액으로 동계방학 중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함. (서울)총학생회장 :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을 못받은 사유에 대한 답변을 요청함. (기획처장) 교육부에서 해마다 수도권대학에 대해 금액은 늘리고 지원 학교 수를 줄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 타 대학도 매년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함. (서울)총학생회장 :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해 문의함. (기획처장) 취업률, 신입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장학금, 학사운영 등 8개 항목을 평가하여 지원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고 국가 정책에 따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함.			

회의내용	<p>(계속)</p> <p>(세종)총학생회장 : 2014학년도 예산에도 법인전입금이 전년도와 동일한데, 2013학년도 등심위에서 법인전입금을 증액하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했는데 증액계획은 없냐고 함.</p> <p>(사무처장) 노력은 하고 있으나 2014학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다고 함.</p> <p>(서울)총학생회장 : 본교는 대학 적립금이 5년간 2,572억 원 이라고 하는데 적립금 적립 경위와 등록금에서 얼마나 적립되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함.</p> <p>(사무처장) 적립금은 등록금회계에서 남긴 것은 아니며, 기금회계에서 적립금이자와 감가상각비 등으로 되어 있고 적립금은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오후에 재무팀 정종혁선생이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함.</p> <p>(학생처장) 일전에 공개한 자료 중에서 본교의 교육비 환원율이 120%가 넘는다. 그러므로 등록금회계에서의 지출은 100%를 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함.</p> <p>(사무처장) 2014학년도부터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나누어 예산편성을 해야 하므로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의 사용 구분이 명확해 질 것이라고 함.</p> <p>(세종)총학생회장 : 교육외 수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p> <p>(사무처장) 교육외 수입은 등록금수입에 대한 예금 이자와 잡수익 등임.</p> <p>(세종)상경대 학생회장 : 소방공사예산이 미집행 되었다는 것은 학생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함.</p> <p>(교학관리처장)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예산 집행을 실시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하다 보니 집행을 못했을 수도 있고. 자세한 사항은 건설관리팀장이 오후에 설명해 주겠다고 함.</p> <p>12:30 (기획처장) 휴회를 요청하고 회의는 15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함.</p> <p>15:00 회의 속개</p> <p>(기획처장) 오전에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한 후 신입생 등록금 가고지에 관하여 논의하자고 제의함.</p> <p>(서울)경영대 학생회장 : 2013 추경예산 설명 후 신입생 등록금 가고지에 대하여 논의하자고함.</p> <p>(사무처장) 오전에 약속한 2013학년도 추경예산에 관한 설명은 재무팀 정종혁선생이, 건축물관리비 집행내역 및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은 건설관리팀 양영갑선생이 참석하여 설명 하겠다고 함(건설관리팀장은 서울시청에 업무가 있어 참석을 못했음)</p> <p>(양영갑) 각 건물 시설유지 집행 내역과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건물 전기소방시설공사 : 집행금액은 일부 소방시설 보수공사이며, 미집행 사항은 고압 수전반, 배전반 노후 전기시설 보수예산으로 한번에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추후 점차로 집행할 예정이고 방학 중 체육관 노후 판넬을 교체할 예정임. - 교육환경개선공사 : 1,2차 교육환경개선공사는 완료하였으며 동계 방학중에 추가로 시설 공사를 할 예정임. - 홍문관 시설공사 등 :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로 전체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우선적으로 50%만 교체하였고 전문대학원의 대학로캠퍼스 이전계획에 따른 예산으로의 미집행금액임. <p>(사무처장) 지하주차장 조명공사는 우선적으로 50%만 시범적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관리의 효율성 등을 평가한 후 나머지 부분을 교체하려고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관C동 실기실공사 : 인문관C동 외부계단의 누수로 인하여 보수하였고 일반대학원 일부 학과의 대학로캠퍼스로의 이전계획에 따른 구조변경 예산이나 이전하지 않아 미집행되었음. <p>(기획처장) 대학원 도예유리과 등 실기실을 필요로 학과의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신</p>
------	---

회의내용	<p>(계속) 추건물인 대학로캠퍼스에서 가마 등을 설치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하여 이전하지 못했음.</p> <p>- 고시반 시설공사 : 리모델링 예산으로 일부시설의 재사용 등으로 비용을 절감한 사항으로 추후 집행예정임.</p> <p>(서울)총학생회장 : 고시반 시설공사의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문의함.</p> <p>(사무처장) 미래인재센터의 기구 신설로 운영 방침이 늦어져서 미집행 하였으나 2월말까지 시설 구입 및 집기비품구입 등으로 집행할 것으로 예상함.</p> <p>(서울)총학생회장 : 고시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요구하여도 들어 주지 않는다고 함.</p> <p>(사무처장) 송시강 교수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시반을 개선 운영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음.</p> <p>- 대학로캠퍼스 구조변경 :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광고홍보대학원, 영상대학원, 산업미술대학원 등의 이전에 따른 대학로캠퍼스의 4층-9층(43개실) 시설공사를 실시하였음.</p> <p>- 각 건물 시설유지보수 : 미집행 금액은 정보동, 제2공학관 G.H.P 설치공사비로 집행예정임.</p> <p>- 미교원 G.H.P공사 : 미교원의 부속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G.H.P 설치예산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구)부속여고 E.H.P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공사로 변경하여 실시하였으므로 예산이 미집행 되었음.</p> <p>(서울)경영대 학생회장 : 미교원 G.H.P공사비 절약으로 학생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미집행으로 2014학년도 등록금 0.7%의 인하할 수 있다고 함.</p> <p>(세종)총학생회장 : 매년 똑같은 예산을 잡아 놓고 사용하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p> <p>(기획처장) 공사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을 미집행한 부분은 이해하여 주기 바라며 건설관리팀에서도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이 가능한 예산 계획을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함.</p> <p>- (구)부속학교 전기, 시설, 설비 공사 : 여중, 여고 강의실을 대학의 실기 및 실험실로 변경하는 구조변경 작업 등의 예산이 미집행 되었음.</p> <p>- (세종)각건물 전기 소방시설공사와 실험실 안전시설공사 : 매년 1회 점검을 받고 있고 지적사항만 보완 공사하였고 실무자가 전문가가 없어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지 못했다고 함.</p> <p>(교학관리처장) 수전반 공사는 완료하였고 동계방학 중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실시 할 예정인데 누락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함.</p> <p>(정종혁) 건축물관리비는 40가지가 넘는 항목으로 예산대비 집행이 완료된 항목은 추경예산서에서 제외하였음을 부연 설명함.</p> <p>(서울)총학생회장 : 기타시설관리비에 관한 설명을 요청함</p> <p>(정종혁) 기타시설관리비는 주로 실험폐수 처리비, 생활쓰레기처리비, 펌말 및 명판 설치비 등으로 집행한 금액이며 친환경물길조성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사무처장님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실시하지 않았음.</p> <p>(서울)총학생회장 : 친환경물길조성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계획이 바뀐 것인가라고 문의함.</p> <p>(사무처장) 2012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의견수렴과 타당성조사, 설계 공모 등을 추진하였으나 제2기숙사 공사 진입로에 지장을 주고 운동장 스탠드의 조경 등 공사계획이 추가되어 현재 문제점을 보완, 검토 중에 있음.</p> <p>(사무처장) 건축물관리비 및 기타시설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이정도도 설명하고 재무팀 정종혁선생이 2013학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겠다고 함.</p>
------	--

회의내용	<p>(계속)</p> <p>(정종혁) 2013학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수입 및 지출에 관련된 세부항목 및 감가상각비에 대한 구체적으로 내용과 2014학년부터 변경될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에 대한 항목을 세목별로 설명함.</p> <p>(서울)총학생회장 : 적립금을 2011년도부터 감가상각비 외에는 등록금회계에서 남겨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5년간 2,572억을 적립금을 쌓아 놓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등록금회계에서 얼마가 적립금으로 넘어갔는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p> <p>(정종혁) 적립금이 생기는 이유와 생성과정, 적립금 사용 예정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함.</p> <p>경영대학생회장 : 2013학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등록금회계 중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축물관리비는 남기고 투자와기타자산지출, 건설가계정 등은 추경예산을 하여 집행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안된다고 함.</p> <p>(사무처장)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계획의 변경, 입찰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설명함.</p> <p>(서울)총학생회장 : 10분간 휴회를 요청함.</p> <p>17:10 회의 속개</p> <p>(기획처장) 2013학년도 추경예산 설명은 이정도로 마무리 하고 부족한 사항은 확인하고 자료를 조사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2014학년도 신입생 등록금 고지지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하고 신입생 등록금 고지지에 따른 사유와 오늘 회의에서 확정해야 한다고 함(내일 신입생 합격자 발표를 하면 등록금이 확정되어야 국가장학금 신청학생의 선 감면 처리를 내일 중으로 해야 하며, 기업체 재직 자녀에 대한 학자금 용자와 회사에서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고지 내역이 필요하므로 시기를 늦출 수가 없음). 그리고 학교 측 등록금 책정안은 사회적 분위기와 동반해서 희생하는 의미에서 동결 안을 낸다고 함.</p> <p>(세종)총학생회장 : 등록금 동결 이유에 대한 근거를 요청함.</p> <p>(사무처장) ①미 집행된 예산은 계획 변경 또는 인허가 사항 지연 등으로 미집행되었으나 이는 모두 시행되어야 할 사업임.</p> <p>②본교는 장학금 지급률은 최고의 수준임.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려면 교육재정 확보가 필수적이고 교육재정은 많이 확보되어야 함. ③등록금을 인상 할 경우 여러 가지 행재정 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동결은 불가피한 조치이고 현재 각 대학의 입장이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됨.</p> <p>(서울)총학생회장 : 본교는 재정 규모면에서 등록금 인하요인의 되므로 어떠한 근거도 제시않은 상황에서 동결에 동의할 수 없으며, 등록금 인하근거에 대하여 설명함 -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 재 적립하고, 적립금 이자 미사용 부분, 법인전입금을 제대로 부담 안하는 부분, 예산을 미집행하고 등록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 미래 장단기계획이 추상적인 부분 등이 이해가 안 가므로 등록금 인하를 요청함.</p> <p>(사무처장) : 예산 집행을 못한 부분은 인정하나 해야 할 사업을 못했다고 등록금을 인하 하라는 것은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 작년에 시행하지 못한 공사 등은 올해에 예산을 잡아 빨리 시행하도록 학생들이 요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 함.</p> <p>(서울)총학생회장 : 제2기숙사 건축비를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한 사유와 장단기계획 사업에 대한 진행 사항을 요청함.</p> <p>(사무처장) 부지가 협소한 본교로서는 지하캠퍼스 개발이 불가피하고 40년이 넘는 건물도 많아 재건축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필요함. 제2기숙사 건축비는</p>
------	---

회의내용	<p>(계속) 등록금회계에서 일부 사용하였다고 함. (서울)총학생회장 : 지하캠퍼스개발을 1995년도부터 준비하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함. (기획처장) 2013년도에는 학생들에게 지하캠퍼스 개발 사업에 따른 설명도 해 주었고 교내공모도 하였으며 최소한의 변화는 있었다고 함. (사무처장) 이제는 지하캠퍼스개발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함. (학생처장) 학교에서 지하캠퍼스개발과 관련하여 계획을 추진하던 중 서울시에서 서울 4개 특정지역을 구분(홍대 포함)하여 지하개발을 하고 타당성 조사까지 끝내고 대비하고 있었으나 서울시장 교체 등으로 인하여 보류되었고 본교에서는 지하개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부연 설명함. (서울)총학생회장 : 학교 서비스도 안 좋고, 부풀어진 예산 및 미집행, 등록금 대비 교육비 최저 수준,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서울시내 최고 수준, 매년 대학평가 하락 등 모든 면에서 하위권인데 우리학교 내세울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 들여야 하는가? 아무런 근거없이 동결만 주장하고 등록금채정을 언제까지 타대학 눈치만 볼 것인가라고 함. (사무처장) 작년에 미집행 사업은 올해에는 최대한 집행 할 것이며 교학협의회를 통하여 논의하고 진행사항은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자고 함. (서울)경영대 학생회장 : 매년 똑같은 말만 반복한다. 올해에는 예산을 제대로 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인하를 요청함. (서울)총학생회장 : 작년에 등심위에서 합의한 부분 중 법인부담금을 증액하려고 노력하고 교육환경개선도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고 하고 학교에서는 노력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동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달라고 하며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은 학교를 못 믿겠다고 함. (사무처장) ①법인부담금은 사실상 법인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 2012년 2억원 에서 2013년도에는 10억 4천만원을 부담하였음. ②예산집행에 있어서 절약은 어렵고 돈 쓰기는 쉽지만 예산 절약을 위해 비용을 검토하다보면 집행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 (서울)총학생회장 : 타 대학은 학생들이 교육환경개선을 요청하면 학교에서 일주일 내에 답변이 오고 해결해 주는데 비해 우리학교는 시간이 없고 직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학생들이 요청한 사항도 20%도 제대로 들어주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예산은 쓰려고 잡는데 적립금을 이제는 쓸데가 됐다고 생각 한다고 함. (기획처장) 오늘 회의에서 등록금채정을 합의하기는 힘들 것 같으므로 등심위는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 신입생 등록금 고지는 동결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등록금 가 고지를 하겠다고 함. (서울)총학생회장 : ①동결을 전제로 한 신입생 등록금 고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음. ②학교가 일방적으로 동결로 고지한다면 총학생회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이 현실과 등심위 진행사항을 알리겠음. ③이와 같은 회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므로 더 이상회의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고 학생 위원 4명이 퇴장함(17:50)</p>
협의 및 의결사항	
특기사항	작성년월일 2014. 01. 27.
회의록 배부처	작성자 재무팀 김 용 훈